

## 한국판 음악 기능 척도의 타당화와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이정윤\*, 김민희\*\*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음악 기능 척도(RESPLECT-Music)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학생 212명으로 구성된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296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정서적 적응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음악 기능 척도는 원 척도와 동일하게 배경 음악, 가치 발달, 집중 향상, 춤 유도, 가족과의 유대, 문화적 정체성 반영, 정치적 태도 표현, 스트레스 해소, 정서 전달, 친구와의 유대의 10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요인 35문항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였고, 문항 신뢰도도 양호하였다. 정서적 적응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악 기능 척도는 정적 정서, 재해석 정서조절 전략, 정서개선 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대체적으로 정서적 적응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하위요인 중 춤 유도 기능이 정서적 적응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은 예외적으로 정서적 적응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음악 기능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수록 정서적 적응 수준이 높았고,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낮았다.

핵심어 : 음악의 기능, 음악 기능 척도(RESPLECT-Music), 타당화, 정서적 적응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leestella11@naver.com)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 I. 서 론

음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해소하는 것, 가까운 이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는 것 등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보았을 일들이다. 이처럼 능동적인 음악 경험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의도치 않게 음악에 노출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당 시간 음악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음악이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져 왔다(Russell, 1945).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음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기억되는지 혹은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음악 기능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내용은 주로 위와 같이 인지적, 정서적 요소, 즉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있었다(Boer, 2009). 반면,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 국가, 문화처럼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음악의 기능은 음악의 개인 내적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음악의 기능을 개인,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Boer, 2009; Boer & Abubakar, 2014; Boer & Fischer, 2012).

본 연구에서는 Boer 등(2012)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RESPLECT-Music: 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맥락에서의 음악의 심리적 기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한국인 샘플에서도 원 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음악 경험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Chin & Rickard, 2012; Miranda & Claes, 2009). 정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개인이 음악을 사용하는 여러 양상과 정서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 척도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1. 음악의 기능

음악의 기능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노력은 심리학, 음악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여기서 음악의 ‘기능’이란 ‘음악을 듣는 목적’과 관련된다(Clayton, 2009; Sloboda, O’Neill, & Ivaldi, 2001). 몇몇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의 기능에 대해 종합적인 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Laiho(2004)는 음악의 기능에 대한 13개 연구를 분석하여 정서, 대인관계, 정체성, 주도성의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고, Chin과 Rickard(2012)

는 설문, 인터뷰, 뇌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음악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보다 부합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음악 기능의 개인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한다. Sloboda(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관련된 경험은 많은 경우 집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처럼 개인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경험적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잊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략으로서 음악을 사용하며(Larson, 1995; Tekman & Hortacsu, 2002), 음악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는 치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brielsson & Lindström, 1996). 또한 음악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거나 추억에 잠기고 싶을 때 사용되는 등 넓은 의미에서 정서를 관리,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slin & Laukka, 2004; Saarikallio & Erkkilä, 2007). 음악은 청소년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으며(Arnett, 1991; Larson, 1995; North & Hargreaves, 1999), 개인적인 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빈번하게 음악을 듣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hne, 1997).

한편 인류학자인 Merriam(1964)은 그의 저서에서 음악이 정서 표현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강화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나아가 한 문화의 연속성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학, 민족음악학자들 역시 음악의 집단 응집적 측면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한다(DeNora, 2000).

합창단이나 밴드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와 음악회에 가는 것처럼 음악 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Chin & Rickard, 2012) 음악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것처럼(Schäfer & Sedlmeier, 2009) 음악이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최근까지 간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Hargreaves & North, 1999). 이는 대다수의 음악 심리학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적 배경을 갖기 때문이라고 간주되는데(Boer & Fischer, 2012), 이로 인한 불균형한 음악 연구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Juslin & Laukka, 2004; North & Hargreaves, 2008; Rentfrow & Gosling, 2006). 그러나 음악의 기능은 분명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Boer & Fischer, 2012), 최근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대해 전체적,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 2. 음악의 기능 측정 도구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지닌 대표적 연구자로 Boer(2009)가 있는데, 그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음악의 기능이 개인적 활동(자기 조절, 정서 표현 등), 사회적 활동(음

악을 통한 친구와의 유대 등), 문화적 활동(정치적 태도 표현 등)의 차원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는 이 차원들이 개인적, 사회적, 집단적 자기(self)의 구별되는 심리적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Boer 등(2012)은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를 제작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이전의 질적 연구에서 피험자가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음악 기능의 요인구조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음악의 친구와의 유대(friends), 가족과의 유대(family), 스트레스 해소(venting), 정서 전달(emotion), 춤 유도(dancing), 배경 음악(background), 집중 향상(focus), 정치적 태도 표현(politics), 문화적 정체성 반영(cultures), 가치 발달(values)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 요인구조는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터키, 케냐, 필리핀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선별된 35문항의 신뢰도 또한 적합하였다.

연구자들은 추가적으로 다차원척도 분석법을 이용하여 음악의 기능 요인들 기저의 차원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집중 향상, 배경 음악, 정서 전달, 스트레스 해소처럼 사적인 상황에서 홀로 음악을 듣는 경우에 속하는 기능들이 음악의 개인 내적 경험에 속하였고, 친구와의 유대, 춤 유도, 가치 발달 기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음악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와 일치하는 가치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사회적 경험에 속하였다. 정치적 태도 표현, 문화적 정체성 반영, 가족과의 유대 기능은 문화와 공동체적 사회를 정의하는 중심적인 특성들이므로(Hofstede, 2001) 음악의 문화적 경험 범주에 포함되었다.

### 3. 음악과 정서적 적응

음악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불안, 우울 등 정서적 고통이 경감되었고(Clark et al., 2006), 노인을 대상으로 한 Laukka(2007)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자주 들으며 정서조절 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강한 연관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orinville, Miranda와 Gaudreau(2013)의 연구에서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듣는 것은 보다 높은 전반적 행복감(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의 신체적, 생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음악감상은 혈압, 심박 수, 호르몬 수치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Watkins, 1997), 유쾌한 음악을 들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했다(Menon & Levitin, 2005).

음악은 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Miranda & Claes, 2009; 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 경험하는 정서, 정서조절 전략처럼 개인의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변인들과 음악 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Laukka(2007)는 음악을 듣는 동기와 목적을 조사하고 음악이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 정적 정서와 일관적인 연관이 있었던 음악 청취의 동기는 정서 조절이나 주도성, 자기 정체성 표현처럼 개인적인 측면에 가까웠다. 최근 Boer와 Abubakar(2014)의 연구에서는 친구, 가족과의 유대를 위한 음악 청취도 정적 정서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Chin과 Rickard(2012)의 연구에서는 음악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해석 전략으로 정서 조절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재해석은 잠재적으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실제 정서 반응이 나타나기 전 선행 사건에 초점을 둔 전략이며 부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이다(Gross & John, 2003). 사람들이 종종 원하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거나 기분을 좋게 관리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Juslin & Laukka, 2004; North et al., 2004) 음악의 사용과 재해석 전략 간 정적 상관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재해석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적 정서는 많이, 부적 정서는 적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Gross & John, 2003).

#### 4.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인 RESPECT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한 후 이중언어자의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문항은 없었으며, 문항의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중언어자와 연구자가 합의를 거쳐 최종 문항을 검토, 완성하였다.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고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RESPECT는 지금까지의 음악의 심리적 기능 연구에서 개인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던 불균형한 관점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음악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음악과 심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아직 국내에 번안되어 소개되거나 이와 유사한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한국인의 음악 경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시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했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고하게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한국판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 간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이 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상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음악의 정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적 정서경험(positive affect), 부적 정서경험(negative affect),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방략 외에도 개인의 정서개선신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절 기대(negative mood regulation strategies) 척도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개선믿음(repair)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적 기분조절 기대는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하거나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하고 정서개선믿음은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Davis, Andresen, Trosko, Massman, & Lovejoy, 2005; 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5).

음악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가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는 부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정적 정서를 최대화하려는 정서적 목표로 나타난다(Laiho, 2004; Zillmann, 1988). 또한 이러한 목표는 부적 기분을 조절하려는 기대와 자신의 정서개선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RESPECT는 정적정서 경험, 재해석 방략,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개선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부적정서 경험과 억제 방략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음악의 기능과 정서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가설은 주로 개인적 측면의 음악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다. 개인의 감정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은 Aristotle에 의해 언급되며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350BC/1997) 최근까지도 음악이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Juslin & Västfjäll, 2008; Konečni, 2008; Kreutz, Ott, Teichmann, Osawa, & Vaitl, 2008; Lundqvist, Carlsson, Hilmersson, & Juslin, 2009; Saarikallio, 2008; Saarikallio, 2011; Saarikallio & Erkkilä, 2007; Van Goethem & Sloboda, 2011). 반면 음악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음악 기능의 세 차원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가 일관적인지 혹은 차별적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탐색적이거나, 선행 연구에 근거했을 때 음악의 개인적 기능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음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212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296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본 A는 음악 기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는 음악 기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분석 및 정서 척도들과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본 A 연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7-32세, 평균 연령은 20.20세(표준편차 2.33)였고, 이 중 남성이 125명(59%), 여성이 87명(41%)이었다. 표본 B 연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7-29세, 평균 연령은 21.22세(표준편차 2.61)였고, 이 중 남성이 125명(42.2%), 여성이 166명(56.1%)이었으며 5명은 연령과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 2. 측정 도구

#### 1) 음악 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

Boer 등(2012)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로서 총 35문항이다. 친구와의 유대 5문항, 가족과의 유대 4문항, 스트레스 해소 4문항, 정서 전달 4문항, 춤 유도 3문항, 배경 음악 3문항, 집중 향상 3문항, 정치적 태도 표현 3문항, 문화적 정체성 반영 3문항, 가치 발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 제작 당시 10개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의 범위는 .57에서 .93이었다.

#### 2) 정서의 측정

##### (1) 정적/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정적 및 부적 감정을 평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Lee(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적 감정, 부적 감정 각각 10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등의 다양한 지시를 하여 상태 감정을 측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소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정적 감정 .84, 부적 감정 .89이다.

## (2)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Gross와 John(2003)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 각각의 대표적인 정서조절 방략으로 언급한 재해석과 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총 10문항이다. 정서를 유발한 선행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과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hn(2005)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재해석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억제에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재해석 .82, 억제 .79이다.

## (3) 부적 기분조절 기대(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NMR)

Catanzaro와 Mearns(1990)가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총 12문항이다. 국내에서 Lee와 Lee(1997)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아진다.’, ‘보통 내 자신을 북돋을 방법을 알 수 있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82이다.

## (4) 정서개선믿음 척도(Repair)

Salovey, Mayer, Golman, Turvey와 Palfai(1995)가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개념인 개선믿음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Lee(1997)의 변안을 토대로 수정되어 Ok(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때로 슬플 때도 있지만, 나는 대체로 미래를 낙관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72이다.

### Ⅲ. 결 과

#### 1. 탐색적 요인분석

음악 기능 척도(RESPLECT) 35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Boer 등(2012)이 제시한 10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direct oblimin)으로 요인을 회전시킨 결과,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Boer 등(2012)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부하되거나 제외되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이 해당 요인에 포함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 내용과 함께 <Table 1>에 제시하였다.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경우 모형적합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본 연구에서는 간명성과 설명력을 모두 포함하는 지수인 RMSEA를 계산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은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RMSEA는 .042로 적절하였다( $\chi^2 = 396.988$ ,  $df = 290$ ). <Table 1>의 한글문항은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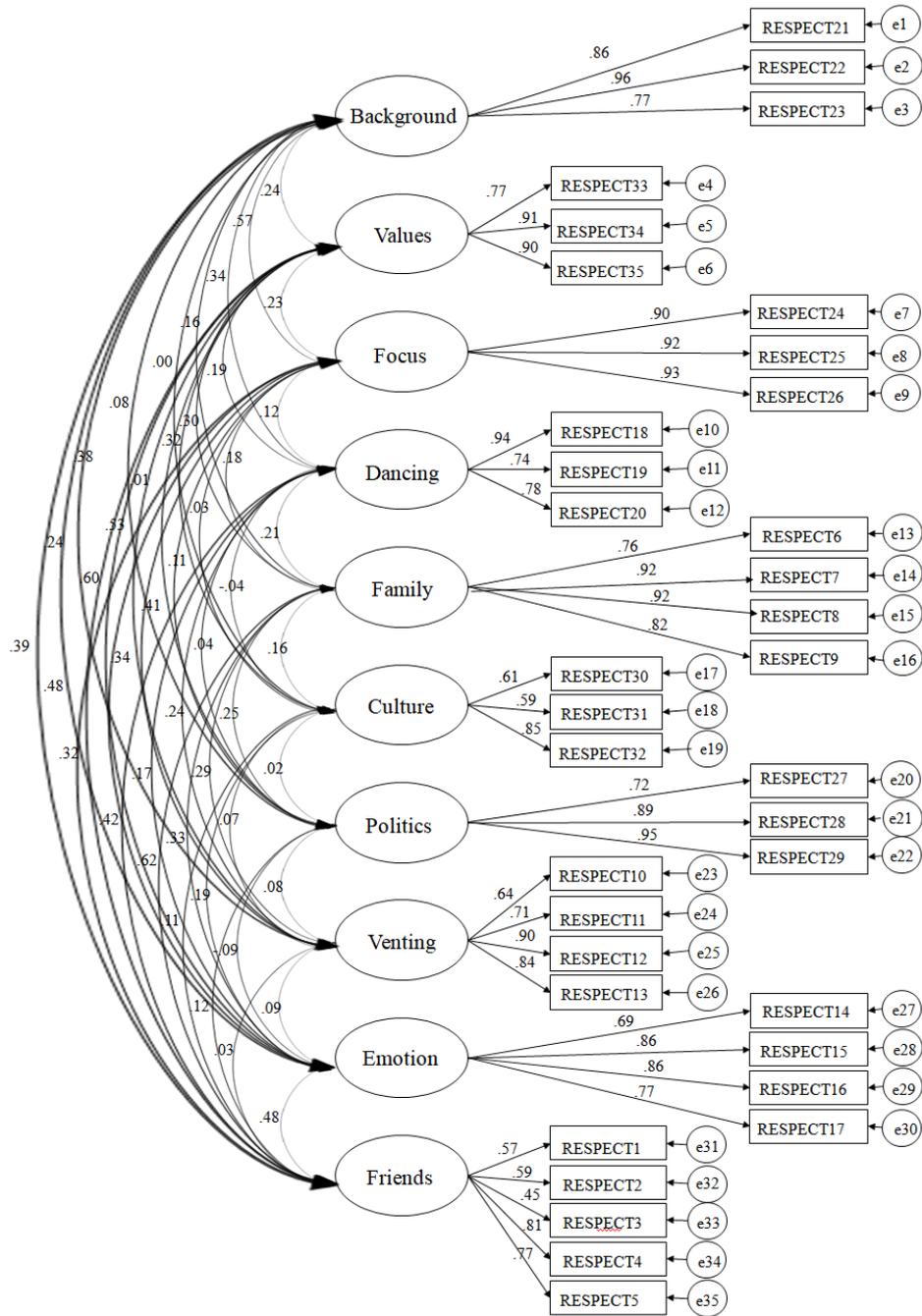
#### 2. 확인적 요인분석

RESPLECT의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을 <Figure 1>에,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고, 모형의 평가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권장되는(Hong, 2000) RMSEA, TLI, CFI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의 기준에 따르면 RMSEA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close fit)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TLI는 .936, CFI는 .945로 양호하였고, RMSEA는 .051로 기준에 가까우므로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lt;Table 1&gt; Factor Loadings Based 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Items From RESPECT

No.	Item	Factor									
		1	2	3	4	5	6	7	8	9	10
22	In many situations I need music in the background.	<b>1.01</b>	.04	.07	.01	-.05	-.01	.00	.00	.03	.03
21	I need music in the background while doing something else.	<b>.79</b>	-.02	-.10	.07	-.01	.02	-.06	-.01	.02	.03
23	Whatever I do, I listen to music in the background.	<b>.72</b>	.00	-.19	.03	.04	-.02	.09	.07	-.05	-.05
34	Somehow music steers my approach to life and my values.	.07	<b>.81</b>	-.04	.02	.03	.06	-.06	-.02	.11	-.05
35	Music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my values.	-.02	<b>.70</b>	-.10	-.01	.08	.08	.08	.03	.09	.08
33	My personal developmen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music.	.01	<b>.66</b>	-.04	.07	.10	.00	-.03	.06	.03	.09
26	Listening to music allows me to concentrate.	.05	.02	<b>-.91</b>	.03	-.03	.03	.01	.03	.02	-.02
25	I can keep my focus on a task while listening to the right music.	-.01	.05	<b>-.91</b>	-.02	-.01	-.03	-.04	.03	.02	.06
24	Music helps me to focus.	.11	.03	<b>-.84</b>	-.03	.02	.01	.04	-.00	.01	-.00
18	I like dancing to certain music.	.06	.01	-.03	<b>.92</b>	.08	-.02	.00	.00	-.06	-.01
19	Some music makes me want to dance.	.03	.09	.07	<b>.81</b>	-.02	-.01	-.05	.05	.00	-.01
20	I like to go dancing, and the type of music is essential for this.	.01	-.06	-.04	<b>.72</b>	.03	.04	.09	-.08	.10	.07
7	Our shared music taste is something that brings my family together.	-.06	.04	-.03	.04	<b>.86</b>	-.04	.04	.07	.00	-.02
8	Music allows me to have a common interest with my family.	-.06	.04	-.05	.05	<b>.83</b>	-.03	.02	.06	.05	.03
9	I enjoy listening to music with my family/relatives.	.01	-.01	.01	.07	<b>.83</b>	.05	-.04	-.03	.00	.02
6	I like talking to my family about music.	.15	.10	.11	-.11	<b>.61</b>	.03	.05	.00	-.00	.14
31	Music is a reflection of a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04	-.06	-.00	-.07	.07	<b>.86</b>	-.01	-.07	.01	.07
30	The music of my country represents an image of my country to the outside world.	-.03	.03	-.00	.14	-.05	<b>.80</b>	.02	.03	-.07	-.01
32	The music in my country is part of building our identity.	-.02	.10	-.01	-.07	-.02	<b>.70</b>	.03	.06	.05	-.02
28	My favourite music is often political.	-.02	.01	.03	-.02	-.03	-.03	<b>.90</b>	.08	-.00	-.00
27	I usually listen to music that goes somewhat with my political beliefs.	.02	-.13	-.09	.03	.05	.01	<b>.77</b>	-.03	.07	.06
29	Mus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my life as a means of political engagement.	.01	.06	.04	.01	.01	.05	<b>.75</b>	-.03	-.02	-.04
12	Music is what alleviates my frustration.	-.00	.04	-.07	-.03	.03	-.05	.07	<b>.90</b>	-.01	.03
13	Music is a means of venting my frustration.	.01	.11	-.06	.06	-.03	-.03	.06	<b>.79</b>	-.05	.08
11	Music seems to reduce stress.	.06	-.08	-.03	-.04	.11	.15	-.16	<b>.57</b>	.18	.01
10	Through listening to music I can let off steam.	.13	-.05	.05	-.01	.14	.12	-.11	<b>.57</b>	.16	-.03
15	Feelings conveyed in a song can make my heart melt.	.03	.00	-.07	-.04	.04	-.04	.03	.04	<b>.86</b>	-.05
16	It's important to me that music transports feelings.	.06	.14	.02	-.04	.05	-.03	.05	-.03	<b>.81</b>	.03
17	Music is emotion flowing in sound.	.02	.13	.01	-.03	-.03	-.03	-.02	.06	<b>.68</b>	.11
14	Some songs ar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bring tears into my eyes.	-.05	-.01	-.03	.18	-.00	.10	-.01	.01	<b>.60</b>	.04
3	I meet with friends and listen to good music.	-.03	-.04	-.02	.07	.09	-.03	-.07	.05	.02	<b>.75</b>
4	Going to concerts and listening to records is a way for me and my friends to get together and relate to each other.	.09	.08	-.01	-.08	.15	.04	.05	-.08	-.01	<b>.74</b>
5	We live these moments of true connection when I listen to music or go to concerts with my friends.	.00	.04	-.11	.02	.04	.09	.07	-.03	.02	<b>.72</b>
1	Through music my friends and I can commemorate happy past moments together.	.05	.09	.02	.12	-.12	-.06	.03	.26	.09	<b>.42</b>
2	Listening to music with friends is a way of sharing good old memories of our lives.	.07	.08	.07	.06	-.09	.07	.00	.16	.16	<b>.42</b>

Notes. Factor 1: Background function; Factor 2: Developing values; Factor 3: Enhancing concentration; Factor 4: Eliciting dancing; Factor 5: Bonding with the family; Factor 6: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Factor 7: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Factor 8: Reducing stress; Factor 9: Conveyance of emotions; Factor 10: Bonding with friends.



<Figure 1> 10-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RESPECT

&lt;Table 2&gt; Fit Indices and Statistic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Model	$\chi^2$	df	CFI	TLI	RMSEA
CFA 10-factor model	900.8	512	.945	.936	.051

Note.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3. 문항 신뢰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

RESPECT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그리고 하위요인 간 상관 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값은 .81에서 .94 사이로 양호하였다.

&lt;Table 3&gt; Means, Standard Deviations, Internal Consistency and Inter-Factor Correlation

	Back-ground	Value	Focus	Dance	Family	Cultural identity	Politics	Stress reduction	Emotion	Friend
Background function	-									
Developing values	.21**	-								
Enhancing concentration	.58**	.22**	-							
Eliciting dancing	.29**	.18**	.10	-						
Bonding with the family	.16**	.30**	.16**	.21**	-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03	.26**	-.01	-.03	.14*	-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14*	.03	.12*	.06	.22**	.01	-			
Stress reduction	.34**	.49**	.36**	.21**	.30**	.07	-.06	-		
Conveyance of emotions	.19**	.52**	.29**	.15*	.31**	.16**	-.06	.61**	-	
Bonding with friends	.34**	.44**	.28**	.35**	.55**	.09	.10	.57**	.42**	-
M	3.07	3.55	3.00	3.01	2.49	3.36	1.47	3.80	3.88	3.24
SD	1.05	0.88	1.07	1.07	0.97	0.84	0.68	0.71	0.78	0.80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89	.90	.94	.86	.91	.81	.88	.85	.86	.83

\* $p < .05$ . \*\* $p < .01$ .

### 4.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과의 상관

RESPECT의 10개 요인이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척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표의 가독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순서대로가 아닌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

순서대로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RESPECT는 전반적으로 정적 정서, 재해석, 부적 기분조절 기대, 개선 믿음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부 하위 요인에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부적 정서, 억제와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적 정서는 배경 음악( $r = .21, p < .01$ ), 집중 향상( $r = .13, p < .05$ ), 스트레스 해소( $r = .26, p < .01$ ), 정서 전달( $r = .23, p < .01$ ), 가치 발달( $r = .33, p < .01$ ), 춤 유도( $r = .33, p < .01$ ), 친구와의 유대( $r = .32, p < .01$ ), 가족과의 유대( $r = .27, p < .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문화적 정체성 반영과 정치적 태도 표현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주로 개인적, 사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연관 있으며, 문화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 정서의 경험과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 $r$ ) Among RESPECT Measure and Other Emotion-Related Measures ( $N = 296$ )

RESPECT	Other measures		PANAS		ERQ		NMR	Repair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Reappraisal	Suppression				
Personal function	.28**	-.13*	.20**	-.08	.20**	.13*		
Social function	.44**	-.14*	.25**	-.17**	.29**	.23**		
Cultural function	.18**	-.02	.12*	.01	.08	.08		
Background music	.21**	-.11	.11	-.10	.14*	.07		
Enhancing concentration	.13*	-.09	.12*	.01	.13*	.03		
Stress reduction	.26**	-.12*	.24**	-.05	.22**	.21**		
Conveyance of emotions	.23**	-.08	.17**	-.10	.13*	.12*		
Development of values	.33**	-.08	.22**	-.03	.18**	.14*		
Eliciting dancing	.33**	-.15*	.11	-.20**	.22**	.17**		
Bonding with friends	.32**	-.07	.24**	-.12*	.23**	.20**		
Bonding with the family	.27**	-.05	.08	-.05	.15*	.07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08	-.06	.17**	-.01	.14*	.17**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04	.10	-.04	.12*	-.21**	-.12*		
<i>M</i>	3.16	2.36	4.80	3.73	3.63	3.48		
<i>SD</i>	.63	.72	.91	1.24	.52	.62		

Notes.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NMR: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 $p < .05$ . \*\* $p < .01$ .

재해석은 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기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집중 향상( $r = .12, p < .05$ ), 스트레스 해소( $r = .24, p < .01$ ), 정서 전달( $r = .17, p < .01$ ), 가치 발달( $r = .22, p < .01$ ), 친구와의 유대( $r = .24, p < .01$ ), 문화적 정체성 반영( $r = .17, p < .01$ ) 기능이 유의한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재해석 방략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성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의 음악 사용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일련의 결과는 음악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해석 방략으로 정서를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Chin & Rickard, 2012).

부적 기분조절 기대와 정서개선믿음은 전반적으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 음악의 기능과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정치적 태도 표현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절 기대는 정치적 태도 표현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정서개선믿음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r = .21, p < .01$ ), 정서 전달( $r = .12, p < .05$ ), 가치 발달( $r = .14, p < .05$ ), 춤 유도( $r = .17, p < .01$ ), 친구와의 유대( $r = .20, p < .01$ ), 문화적 정체성 반영( $r = .17, p < .01$ ) 하위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도 부적 기분조절 기대와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작은 경향이 있었다.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은 부적 기분조절 기대( $r = -.21, p < .01$ ), 정서개선믿음( $r = -.12, p < .05$ )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의 부족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했을 때 낮은 정서적 기능, 정신건강 그리고 높은 불안, 우울과 연관될 수 있다(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2; 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음악의 기능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는 전반적으로 연관이 없었으나, 스트레스 해소( $r = -.12, p < .05$ ), 춤 유도( $r = -.15, p < .05$ ) 기능은 부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좌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적은 부적 감정 경험과 연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RESPECT는 억제와도 전반적으로 뚜렷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춤 유도( $r = -.20, p < .01$ ), 친구와의 유대( $r = -.12, p < .05$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치적 태도 표현( $r = .12, p < .05$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억제란 Gross와 John(2003)이 재해석과 함께 제안한 정서조절 방략으로 정서가 일어난 후 정서의 행동적 측면을 수정하는 반응 초점적인 방략이다. 부적 정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 정서가 지속되며,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갖는다. 즉, 재해석에 비해 바람직한 정서조절 방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수록 억제 방략을 많이 사용하며 춤을 추거나 친구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적응과 유의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정서 경험과 지각된 정서조절 능력, 낮은 부적 정서 경험과 연관 있었다. 또한 정서 경험으로 인한 표현을 억제하기보다는 정서 경험 이전에 인지적 변화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정서조절을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음악의 문화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적응 변인과 약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는 전반적인 결과와는 정반대였는데,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역기능적 전략을 사용했고, 스스로 부정적 기분을 완화하거나 긍정적 기분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을 잘할 수 없다고 지각했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인 RESPECT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여 기존의 10요인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 변인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이 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RESPECT는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배경 음악, 가치 발달, 집중 향상, 춤 유도, 가족과의 유대, 문화적 정체성 반영, 정치적 태도 표현, 스트레스 해소, 정서 전달, 친구와의 유대 10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oer 등(2012)이 원 척도 제작 당시에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10요인 35문항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적응은 정적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적 정서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정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정서조절 목표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표는 정서를 개선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음악 기능 척도는 정적 정서 경험, 재해석 전략,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개선믿음과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부적 정서 경험과 억제 전략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악을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고 해서 부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춤 유도와 스트레스 해소 기능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해소 기능은 그 자체의 목적이 부적 상태의 감소이므로 예측 가능한 결과

로 간주할 수 있다. 춤은 대개 음악이 동반되는 안무에 의한 몸의 움직임을 말하는데(Hui, Chui, & Woo, 2008), 신체 움직임이 많을수록 적은 불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횡단 연구, 종단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얻은 결론이다(Krause, Goldenhar, Liang, Jay, & Maeda, 1993; Stephens, 1988). 이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춤 유도 기능과 부적 정서와의 부적 상관관은 선행연구들과 일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춤 유도 기능과 억제 방략 간 부적 상관 결과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하는 행위인 춤은 부적 정서의 표현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억제 방략과 그 성질이 상반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에서 억제 방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적 정서를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고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것을 밝혔다(Gross & John, 2003).

본 연구의 결과를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 차원으로 요약하면, 음악을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적, 사회적일수록 정서적 적응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문화적 측면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적응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서의 기능이 개인적, 사회(관계)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Keltner와 Haidt(1999)의 정서적 기능의 분석 수준 이론과도 일치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수준에서 정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한 문화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고 가치와 규준을 학습시키며,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나 혐오 같은 부적 정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의 문화적 기능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태도 표현은 정서적 적응 변인들과 독특한 양상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방략으로 정서를 조절하며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음악의 기능 하위 요인들과 달리 정적 정서의 경험과도 무관했다. 즉, 10가지 음악의 기능 중 정서적 적응과 가장 관련 없는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음악이 갖는 정치적 기능이 상당 부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다시 말해 저항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음악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단 내부의 협동, 결속, 소속감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그 집단을 정의하는(Garofalo, 2010), 즉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하는 음악은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 음악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의 저항 음악은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음과 불평이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되는데, 20세기 유럽 노동자들의 합창, 미국의 시민권, 반전(anti-war) 가요에서부터 미국의 진보적인 저항 전통을 드러내는 로큰롤까지 이어져왔다. 정치적인 음악은 종종 증오의 감정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백인 우월론자 조직이나 신나치주의 정당에서 구성원의 모집과 기금조성을 위해 사용한 음악(white power music)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Garofalo, 2010). 이러한 음악들은 데스 메탈, 컨트리 음악과 같은 여러 장르를 포함하며 확장되었다. 이처럼 정치

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음악들이 상당 부분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음악의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정서적 부적응 간 연관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Boer 등(2012)이 원 척도를 제작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음악이 여러 시기에 걸친 개인의 삶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 심리적 안녕감 등 신체적,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명백히 나타난 사실이다(Laukka, 2007; Miranda & Gaudreau, 2011; 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Saarikallio, 2011). 따라서 대학생이 포함된 초기 청년기 이외의 연령대에서 음악의 기능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성인이나 노인 집단에서 어떤 음악 경험이 두드러지는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에 의한 음악 사용이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음악의 기능과 정서적 적응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악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데 영향을 준다면, 혹은 음악을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음악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처럼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인 RESPECT를 한국어로 타당화하여 음악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심리적 기능에 대해 국내의 정서와 음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 기능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했던 원 척도를 보완하고 보다 공고하게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의 기능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다. Boer 등(2012)은 원 척도를 개발한 후 독일,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척도를 실시하여 음악 기능의 문화 차이 양상을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어떤 문화권에서나 정서 전달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개인 내적 동기에 의한 음악 사용이 가장 두드러져, 음악 기능에서 개인적 측면이 집단적 측면보다 주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화의 차이는 음악의 문화적 기능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는데, 음악은 세속적 가치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자기 정체성이나 집단적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 일상적인 행동에까지 확장되었다. 심리학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사회적 맥락에의 조화를 중시하며 공적인 위치, 역할, 관계 등을 우선하는, 북미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여러 문화권 중 집단적인 성격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측정된 음악의 기능을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정서적으로 적응적인 삶과 연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음악을 정서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지침을 제공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나 정서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 또는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절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개인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 이슈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음악은 단지 수동적인 향유 대상이 아니라 주요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정서 관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ristotle (1997). Poetics. In P. Atherton & J. Baxter (Eds.), *Aristotle's poetics* (pp. 3-34).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1991). Adolescents and heavy metal music: From the mouths of metalheads. *Youth & Society*, 23(1), 76-98.
- Behne, K. E. (1997). The development of "Musikerleben" in adolescence: How and why young people listen to music. In I. Deliège & J. A. Sloboda (Eds.), *Perception and Cognition of Music* (pp. 143-159). Hove, England: Psychology Press.
- Boer, D. (2009). *Music makes the people come together: Social functions of music preferences for young people across cult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
- Boer, D., & Abubakar, A. (2014). Music listening in families and peer groups: Benefits for young people's social cohesion and emotional well-being across four cultures. *Frontiers in Psychology*, 5, 392.
- Boer, D., & Fischer, R. (2012). Towards a holistic model of functions of music listening across cultures: A culturally decentered qualitative approach. *Psychology of Music*, 40(2), 179-200.
- Boer, D., Fischer, R., Tekman, H. G., Abubakar, A., Njenga, J., & Zenger, M. (2012). Young people's topography of musical functions: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with music across genders and six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5), 355-369.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230-258.
- Catanzaro, S. J., & Mearns, J. (1990). Measuring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46-563.
- Chin, T. C., & Rickard, N. S. (2012). The Music USE (MUSE) questionnaire: An instrument to measure engagement in music.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9(4), 429-446.
- Clark, M., Isaacks-Downton, G., Wells, N., Redlin-Frazier, S., Eck, C., Hepworth, J., & Chakravarthy, B. (2006). Use of preferred music to reduce emotional distress and symptom activity during radiation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43(3), 247-265.

- Clayton, M. (2009). The social and personal functions of music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S. Hallam, I. Cross, & M. Thaut (Eds.), *The oxford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pp. 35-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R. N., Andresen, E. N., Trosko, M., Massman, P. J., & Lovejoy, M. C. (2005). Negative mood regulation (NMR) expectancies: A test of incremental valid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2), 263-270.
- DeNora, T. (2000). *Music in everyday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xtremera, N., & Fernández-Berrocal, P. (2002). Relation of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Psychological Reports, 91*(1), 47-59.
- Extremera, N., & Fernández-Berrocal, P. (2005).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Predictive and incremental validity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937-948.
- Fabrigar, L., Wegener, D., MacCallum, R., & Strahan, E.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 Gabrielsson, A., & Lindström, S. (1996). Can strong experiences of music have therapeutic implications? In R. Steinberg (Ed.), *Music and the mind machine: The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ology of the sense of music* (pp. 195-202). Heidelberg, Berlin: Springer.
- Garofalo, R. (2010). Politics, mediation, social context, and public use. In P. N. Juslin & J. A. Sloboda (Eds.),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725-75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rgreaves, D. J., & North, A. C. (1999). The functions of music in everyday life: Redefining the social in music psychology. *Psychology of Music, 27*(1), 71-83.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i, E., Chui, B., & Woo, J. (2008). Effects of dance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person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9*(1), 45-50.

- Juslin, P. N., & Laukka, P. (2004). Expression, perception, and induction of musical emotions: A review and a questionnaire study of everyday listening. *Journal of New Music Research, 33*(3), 217-238.
- Juslin, P. N., & Västfjäll, D. (2008).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The need to consider underlying mechanis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1*(5), 559-621.
- Keltner, D., & Haidt, J. (1999).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at four levels of analysis. *Cognition and Emotion, 13*(5), 505-521.
- Konečni, V. J. (2008). Does music induce emotion?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nalysi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2*(2), 115-129.
- Krause, N., Goldenhar, L., Liang, J., Jay, G., & Maeda, D. (1993). Stress and exercise among the Japanese elderly. *Social Science & Medicine, 36*(11), 1429-1441.
- Kreutz, G., Ott, U., Teichmann, D., Osawa, P., & Vaitl, D. (2008). Using music to induce emotions: Influences of musical preference and absorption. *Psychology of Music, 36*(1), 101-126.
- Laiho, S. (2004).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music in adolescenc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47-63.
- Larson, R. (1995). Secrets in the bedroom: Adolescents' private use of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35-550.
- Laukka, P. (2007). Uses of music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2), 215-241.
- Lee, S. J., & Lee, H. K. (1997).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 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1), 95-116.
- Lee, Y. J. (1994).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mood level and its variability*(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undqvist, L., Carlsson, F., Hilmersson, P., & Juslin, P. N. (2009).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Psychology of Music, 37*(1), 61-9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enon, V., & Levitin, D. J. (2005). The rewards of music listening: Response and physiological connectivity of the mesolimbic system. *Neuroimage, 28*(1), 175-184.

- Merriam, A. P.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Miranda, D., & Claes, M. (2009). Music listening, coping, peer affilia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Psychology of Music, 37*(2), 215-233.
- Miranda, D., & Gaudreau, P. (2011). Music listening and emotional well-being in adolescence: A person- and variable-oriented study.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1*(1), 1-11.
- Morinville, A., Miranda, D., & Gaudreau, P. (2013). Music listening motivation is associated with global happiness in Canadian late adolescent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7*(4), 384-390.
- North, A. C., & Hargreaves, D. J. (1999). Music and adolescent identity. *Music Education Research, 1*(1), 75-92.
- North, A. C., & Hargreaves, D. J. (2008). *The social and applied psychology of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h, A. C., Hargreaves, D. J., & Hargreaves, J. J. (2004). Use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2*(1), 41-77.
- North, A. C., Hargreaves, D. J., & O'Neill, S. A. (2000). The importance of music to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2), 255-272.
- Ok, S. J. (2001).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repressors*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 전략)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entfrow, P. J., & Gosling, S. D. (2006). Message in a ballad: The role of music preferences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Science, 17*(3), 236-242.
- Russell, B. (1945).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its connection with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from the earliest times to present stud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arikallio, S. (2008). Music in mood regulation: Initial scale development. *Musicae Scientiae, 12*(2), 291-309.
- Saarikallio, S. (2011). Music as emotional self-regulation throughout adulthood. *Psychology of Music, 39*(3), 307-327.
- Saarikallio, S., & Erkkilä, J. (2007). The role of music in adolescents' mood regulation. *Psychology of Music, 35*(1), 88-109.
- Salovey, P., Mayer, J. D., Gol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lovey, P., Stroud, L. R., Woolery, A., & Epel, E. S. (2002).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activity, and symptom reports: Further explorations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sychology and Health, 17*(5), 611-627.
- Schäfer, T., & Sedlmeier, P. (2009). From the functions of music to music preference. *Psychology of Music, 37*(3), 279-300.
- Sloboda, J. A. (1999). Everyday uses of music listening: A preliminary study. In S. W. Yi (Ed.), *Music, Mind, and Science* (pp. 354-36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loboda, J. A., O'Neill, S. A., & Ivaldi, A. (2001). Functions of music in everyday life: An exploratory study using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Musicae Scientiae, 5*(1), 9-32.
- Sohn, J. M. (2005).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regulation strategies: cognitive reappraiser vs. emotion suppressor*(정서조절 전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tephens, T. (1988). Physical activity and ment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Evidence from four popular surveys. *Preventive Medicine, 17*(1), 35-47.
- Tekman, H. G., & Hortacsu, N. (2002). Aspects of stylistic knowledge: What are different styles like and why do we listen to them? *Psychology of Music, 30*(1), 28-47.
- Van Goethem, A., & Sloboda, J. (2011). The functions of music for affect regulation. *Musicae Scientiae, 15*(2), 208-228.
- Watkins, G. R. (1997). Music therapy: Proposed physiological mechanism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Nurse Specialist, 11*(2), 43-50.
- Watson, D., Clark, L.,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Zillmann, D. (1988). Mood Management through communication choi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1*(3), 327-340.

- 게재신청일: 2017. 10. 10.
- 수정투고일: 2017. 11. 09.
- 게재확정일: 2017. 11. 21.

## Validation of RESPECT-Music With a Korean Sample

Lee, Jung Yun\*, Kim, M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RESPECT-Music, which measures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 of music,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RESPECT data and the data measured from other scales for emotion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wo separate gro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A ( $N=212$ )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es with sample B ( $N=296$ )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generated 10 factors as influential factors in music use, which was the similar results to the original scale: background, values, focus, dancing, family bonding, cultural identity, political attitudes, venting,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bonding.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s 35-item measurement was found to obtain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correlations were found with other scales measuring emotional adjustment. Specifically, RESPEC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ales for positive affect, reappraisal,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repair. Among the generated factors as music function, dancing was high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djustment, while political attitud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djus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music use in our everyday lives is intercorrelated with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motives and emotional adjustment, while the function of music that influences cultural identity was not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motional adjustment.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 *functions of music, RESPECT-Music, validation, emotional adjustment*

---

\*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stella11@naver.com)

\*\*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lt;Appendix 1&gt; Item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 RESPECT and Item-Total Correlation

Item	<i>M</i>	<i>SD</i>	Item-total correlation ( <i>r</i> )
1	3.64	1.03	.60
2	3.87	.98	.62
3	3.10	1.13	.71
4	2.63	1.21	.70
5	2.68	1.18	.72
6	2.67	1.22	.68
7	2.26	1.11	.81
8	2.40	1.15	.82
9	2.41	1.17	.78
10	4.39	.76	.72
11	4.40	.68	.73
12	3.93	.87	.82
13	3.64	1.00	.72
14	3.53	1.26	.62
15	3.97	.86	.81
16	3.94	1.01	.81
17	3.99	.84	.73
18	2.86	1.24	.82
19	3.31	1.20	.75
20	2.30	1.23	.72
21	3.27	1.16	.82
22	2.99	1.24	.91
23	2.60	1.18	.79
24	2.83	1.10	.89
25	3.01	1.10	.90
26	2.87	1.09	.92
27	1.50	.76	.70
28	1.31	.65	.78
29	1.34	.70	.66
30	3.32	.97	.70
31	3.51	.94	.73
32	3.46	.95	.65
33	3.47	1.06	.77
34	3.61	1.00	.81
35	3.43	1.04	.81

&lt;Appendix 2&gt; &lt;Table 1&gt;에 제시된 음악 기능 척도(RESPLECT) 문항의 한국어 버전

번호	문 항
22	많은 경우 나는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2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23	나는 무엇을 하든지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34	음악은 나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35	음악은 나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33	나의 개인적 성장은 음악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6	음악감상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5	나는 나에게 맞는 음악을 들을 때 과업에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24	음악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18	나는 특정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19	어떤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싶어진다.
20	나는 춤추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때 음악의 종류는 매우 중요하다.
7	우리 가족의 공통된 음악취향은 우리 가족을 결속시킨다.
8	음악으로 인해 나는 가족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
9	나는 가족/친척과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6	나는 가족에게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음악은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30	우리나라의 음악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32	우리나라의 음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부분이다.
28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보통 정치적이다.
27	나는 나의 정치적 신념과 어울리는 음악을 주로 듣는다.
29	음악은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완화시켜 준다.
13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다.
11	음악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음악감상을 통해 기분을 풀 수 있다.
15	노래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다.
16	음악이 감정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7	음악은 소리에 실린 감정이다.
14	어떤 노래는 매우 강력해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
3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
4	음악회에 가고 음반을 듣는 것은 나와 내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다.
5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거나 음악회에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1	음악을 들으면 친구들과 내가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2	친구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